

Emerging Daily

인도증시, 기준금리 35bp 인하에도 하락

2019. 8. 8 목요일

상해종합지수 2,768.7(-8.9pt, -0.32%) / 차스닥지수 1,500.3(-7.7pt, -0.51%)

상승 출발한 상해종합지수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약세로 마감. 거래대금은 1,765억위안으로 전일대비 31% 감소. 인민은행이 역외 위안화 방어에 나서면서 점진적인 약세가 이루어졌으나,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지속됨. 또한 장중 금요일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정부가 공식 반박에 나선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 업종별로 Glencore가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인 Mutanda가 채산성 악화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코발트 관련주가 급등하며 비철금속 강세를 견인. 단 반도체, 증권, 통신, IT/HW, 보험 등 업종이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견인. 외국인은 상해A주와 심천A주를 각각 25억위안, 6억위안 순매도

홍콩 H 지수 9,993.3(-18.9pt, -0.19%) / 항생지수 25,997.0(20.8pt, +0.08%)

홍콩H지수는 장 초반 하락폭이 확대됐고, 장중 반등을 시도했지만 10,000p선을 하회. 인민은행이 고시환율을 6.99 위안/달러로 고시했고 이에 역외 환율도 0.3% 이상 절하된 점이 부정적. 7월 판매량 부진에 비야디(-4.8%)가 급락했고, 금융, 에너지 업종도 하락. 반면 부동산, 스포츠웨어, 필수소비재 등 업종에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인도 센섹스지수 36,690.5(-286.3pt, -0.77%)

인도 증시는 하락 마감. 기준금리를 25bp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인도 중앙은행은 35bp 인하한 5.40%로 결정. 동시에 중앙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7.0%에서 6.9%로 하향조정. 이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인도 증시는 하락 마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 6,204.2(84.7pt, +1.38%)

인도네시아 증시는 5거래일만에 반등하면서 6,200p를 회복.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통화완화정책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특히,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임

베트남 VN 지수 965.9(1.3pt, +0.14%) / HNX 지수 101.9(0.0pt, +0.0%)

상승 출발한 VN지수는 장중 약세로 전환됐지만 V자 반등하며 강세로 마감. 업종별 등락이 상이한 가운데, 경기소비재 업종이 2% 넘게 상승했고, IT업종도 1% 넘게 상승하며 지수대비 아웃퍼폼. 외국인은 BID(베트남투자개발은행), VNM(베트남유제품) 등을 순매수한 반면 VRE(빈콤리테일), PVT(페트로베트남운송) 등을 순매도

주요 이머징마켓 금융지표

(단위: p, %, %)

| 구분 | 8/7(수) | 전일대비 | 전년말대비 | 구분 | 8/7(수) | 전일대비 | 전년말대비 |
|-----------|---------|-------|-------|---------------|--------|--------|--------|
| 중국 상해종합 | 2,769 | (0.3) | 11.0 | MSCI 이머징마켓 | 973 | (0.0) | 0.7 |
| 중국 심천종합 | 1,484 | (0.4) | 17.0 | MSCI 선진국 | 2,114 | 0.2 | 12.2 |
| CSI 300 | 3,621 | (0.4) | 20.3 | S&P500 | 2,884 | 0.1 | 15.0 |
| 차이넥스트 | 1,500 | (0.5) | 20.0 | KOSPI | 1,910 | (0.4) | (6.4) |
| 홍콩 H | 9,993 | (0.2) | (1.3) | 위안/달러 환율 | 7.06 | 0.00 | 2.64 |
| 홍콩 항생 | 25,997 | 0.1 | 0.6 | JP모건 EM통화지수 | 61.21 | (0.07) | (1.67) |
| 인도 SENSEX | 36,691 | (0.8) | 1.7 | 달러인덱스 | 97.54 | (0.09) | 1.43 |
| 브라질 보베스파 | 102,782 | 0.6 | 16.9 | 인도 국채금리(10Y) | 6.37 | 0.03 | (1.00) |
| 인도네시아 JCI | 6,204 | 1.4 | 0.2 | 브라질 국채금리(10Y) | 7.18 | (0.09) | (2.05) |
| 베트남 VN | 966 | 0.1 | 8.2 | 중국 국채금리(10Y) | 3.05 | (0.02) | (0.26) |

출처: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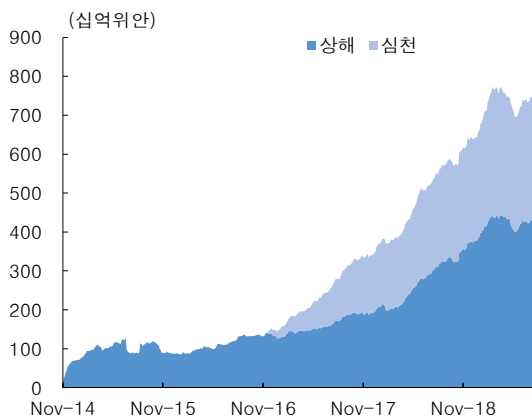


NEWS

- ▶ 중국, 7월 외환보유고 3.10조달러(컨센서스 3.11조달러, 직전치 3.12조달러)
- ▶ 중국 인민은행, 8월 10일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발표
- ▶ 경제참고보, 올해 중국 5G 기지국수는 15만개에 달하고, 3대 통신사의 R&D 투자는 4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
- ▶ 경제참고보, 부동산 규제 강화로 하반기 부동산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라 보도
- ▶ MSCI, MSCI EM 지수 편입비중 상향 조정으로 A주의 비중은 2.46%로 상승할 것
- ▶ 차이나타워(788.HK), 상반기 매출액 379.8억위안(+7.5% YoY), 순이익 25.5억위안(+110.6% YoY)
- ▶ 러시아, 7월 마지막주 주간 CPI 상승률 0.0%(직전치 -0.1%)
- ▶ 브라질, 7월 소매판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0.3%(컨센서스 0.6%, 직전치 1.0%)
- ▶ 인도네시아, 7월 외환보유고 1,259억달러(직전치 1,238억달러)
- ▶ 인도, 기준금리 5.40%로 35bp 인하(컨센서스 5.50%, 직전치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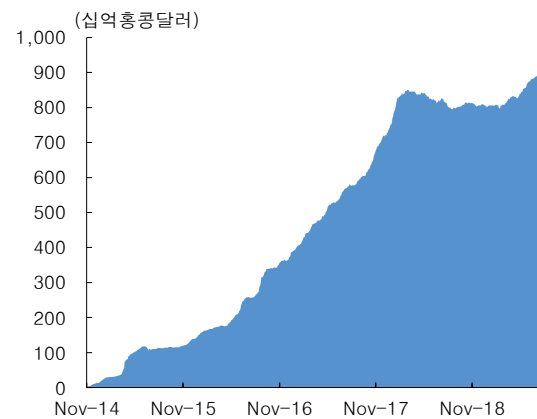
외국인들의 중국 A주 매매 동향

후/선구통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강구통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당일 후/선구통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들의 순매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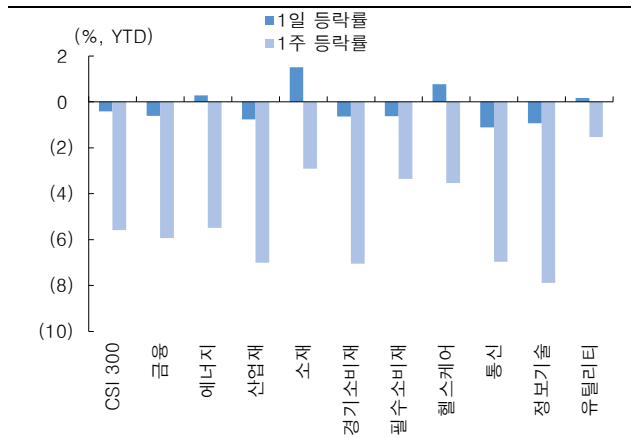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후구통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 | | | | 선구통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 | | | |
|--------------------|-----------|--------|-------|-------|--------------------|-----------|-------|-------|-------|
| 순위 | 종목코드 | 종목명 | 순매수액 | 상승률 | 순위 | 종목코드 | 종목명 | 순매수액 | 상승률 |
| 1 | 600887.SH | 이리실업 | 190 | 0.2 | 1 | 300498.SZ | 온씨식품 | 192 | (1.7) |
| 2 | 600519.SH | 귀주모태 | 86 | (0.1) | 2 | 000002.SZ | 만과A | 105 | 1.3 |
| 3 | 600585.SH | 해라시멘트 | 54 | (0.4) | 3 | 000858.SZ | 오랑액 | 28 | (2.0) |
| 4 | 600276.SH | 항서제약 | 36 | 1.2 | 4 | 000001.SZ | 평안은행 | 17 | 1.3 |
| 5 | 601012.SH | 용기고분 | 32 | (1.8) | 5 | 002415.SZ | 하이크비전 | (7) | 0.1 |
| 6 | 600030.SH | 중신증권 | (8) | (1.7) | 6 | 000333.SZ | 메이디그룹 | (20) | (0.9) |
| 7 | 600183.SH | 광동색익 | (9) | (3.9) | 7 | 002304.SZ | 양허구분 | (21) | (1.6) |
| 8 | 600036.SH | 초상은행 | (158) | (1.0) | 8 | 002714.SZ | 목원식품 | (25) | 0.1 |
| 9 | 601166.SH | 흥업은행 | (193) | 0.5 | 9 | 000651.SZ | 격력전기 | (79) | (1.3) |
| 10 | 601318.SH | 중국평안보험 | (802) | (1.2) | 10 | 002129.SZ | 중환반도체 | (108) |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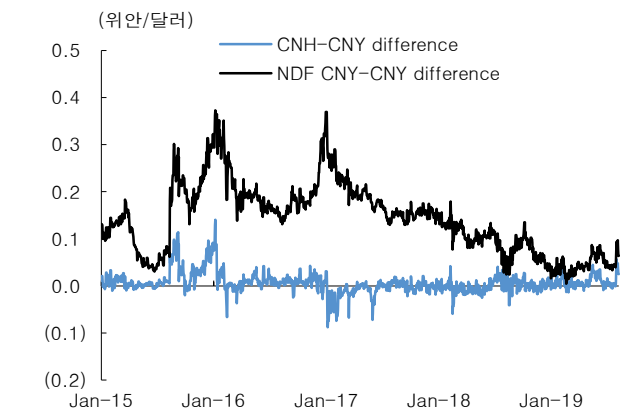
출처: Wind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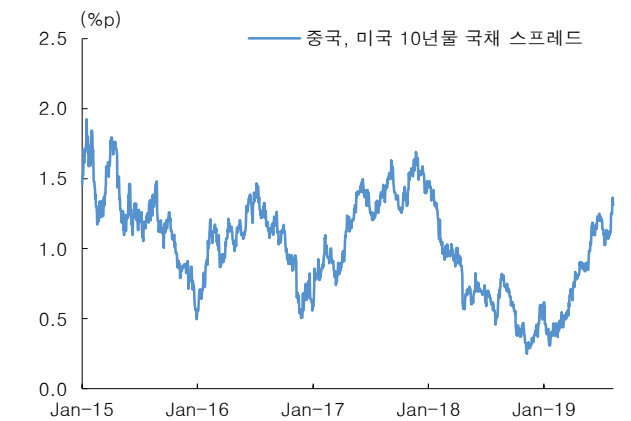
중국 CSI 업종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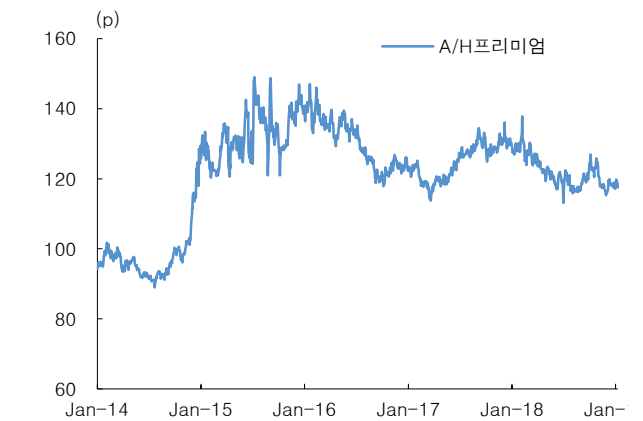
역내외 위안화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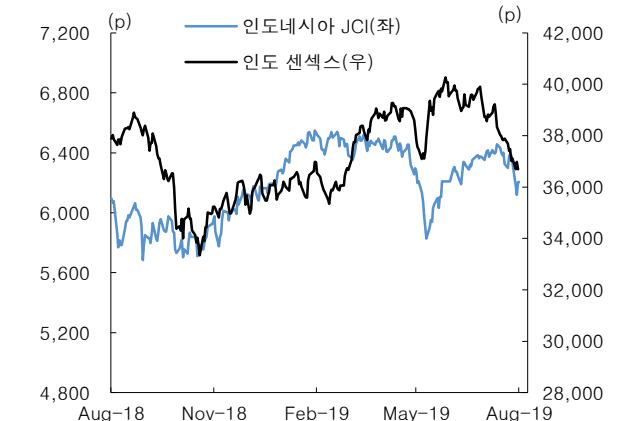
중국과 미국 금리차(10년 국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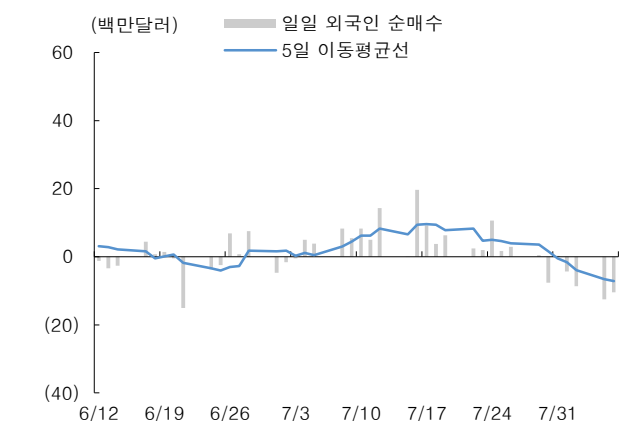
A/H 프리미엄 추이



인도네시아 JCI, 인도 센섹스 지수



베트남 증시 외국인 순매수



출처: Bloomberg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